

육신의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Q: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건가요?

A: 우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초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의 원천이며 죄로 가득한 덩어리로 보면서 육신은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맞서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부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루카 24,35-40)

출처: 교리특특 신앙썩썩(2020. 4. 26.)



〈토마스의 의심〉 카라바조, 1602

연중
제 17주일
2023년
07월 3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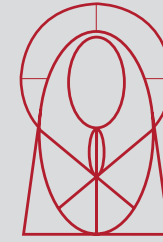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오 13,44-52>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열왕기 상권 3,5-6 7,7-12
- #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7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8-30
-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복음 마태오13, 44-52
- # 성기번호 입당 459 봉헌213, 513 성체 156, 187 파견6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이 베드로, 조 카타리나 - 이 엘레나
 - 권옥희 - 이명호(비비안나)
 - 손정호 - 가족
 - 백원자(마리아 막달레나) - 가족
 - 최준혁(베드로) -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사도회, 채희백(바오로) 가족, 먼로 구역,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올리야나) 가정 - 정 테레사
 - 이 마이클 - 오경선(원선시오), 염 세실리아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한종매(안나) - 가족, 황태진(필립보) 가족
 - 한상철(빈첸시오), 한종매(안나) 가정 - 김순옥(올리야)
 - 정수지(아네스) - 김 아가다, 정 테레사, 김순옥(올리야), 염 세실리아
 - 임영자(안나) - 하 테레사, 노스브런스윅 구역, 변태용(요셉) 가족
 - 변상민(에드워드) 가정 - 변태용(요셉)
 - 변상원(제임스) 가정 - 변태용(요셉)
 - 김인영(수잔) - 카도너 CLC
 - 황규준(방지거) - 정 테레사
 - 박영용 - 최 모니카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32명)..... \$1,175
 - 감사헌금익명 \$500
 - 교무금.....\$1,240
 - 김영숙(7-8) 이용문(7) 육순재(7-12)
 - 이호용(8) 박화성(7-12) 최영옥(7)

- 제 26차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 주제: 하느님 뜻 찾아 따르기
 - 지도신부: 하태수 미카엘 신부님 (예수회)
 - 일시: 9월 6일(수) 오후 4시-10일(일) 오후 3시
 - 장소: Loyola House of Retreats, Morristown, NJ 07960
 - 주최: 뉴욕 K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참가비: \$560(신청비\$160)
 - 인원: 선착순 40명(8월 26일 마감)
 - 신청문의: 조현실 테오도라 732-865-1550 nykclcretreat@gmail.com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올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정수지(아네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8/6 텃거스 • 9/10 먼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2023년 8월 15일(화) 오전 9시(영어); 오전11시(한국어)
- 장소: 성당

예비자 교리반 안내

- 9월부터 예비자 교리를 시작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있는 분들께 안내 부탁드립니다.(8월 31일 마감)
- 문의: 선교분과장 이서형(요안나)

3/4 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테네시 농장 농산물 주문

- 마감: 7월 30일(주일) & 픽업: 8월 13일(주일)
- 유기농 옥쪽마늘 품절
- 문의: 성모회장 이소희(사라)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8월 6일 11시 30분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비: 김수완 세실리아 청소년 분과장

주일학교 (K – 8th Grade) 및 유스 (9th– 12th Grade)모집

- 2023-2024 주일학교가 9월 10일에 시작합니다.
- 접수: 7월 23일- 8월 30일까지 OLM성당 홈페이지 링크 이용
- <https://sites.google.com/view/olmsbbnj/church-organizations/parish-religious-education?authuser=0>
- 접수비: \$70(학생, \$130(2명), \$180(3명) 한지혜(크리스티나) 자모회장님께 전달

학생 독서단 모집

- 5학년- 유스그룹 대상으로 학생 독서단을 모집합니다. 매 월 마지막 주일 미사 중 제 2독서를 읽게 되며 미사 전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미사부터 시작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8월 27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신청: 청소년 분과장 김수완 세실리아 suwankim@gmail.com 전례분과장 맹순영 베로니카

청년 및 소년 레지오단원 모집

-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를 통해 개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성모님의 군단에 초대합니다.
- **청년 브레시디움** (18세 이상 남녀 청년)
- **소년 브레시디움** (첫 영성체를 한 5학년-12학년 학생)
- 문의: 꾸리아 단장 채미영 테레사 (862-579-9999)

선교지의 청소년들에게 악기 보내기 및故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를 위한 추모 음악회

- 일시: 2023년 8월 13일(주일) 오후 5시 -7시
- 장소: 뉴저지 데마레스트 성요셉 성당
- 문의: 문혜은 아욱살리아 718-344-6565 구분주 미카엘 917-348-5977

2023 꽃동네 가정성화 피정

- 일시: 2023년 8월 26일(토) 오전 9시 - 27일(일) 오후 5시
- 장소: NJ 가톨릭 센터 (12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 강사: 전남현 야고보 신부님 (파나마 꽃동네), 김태형 야고보 수사님 (파라과이 꽃동네)
- 접수: 201-230-5643 / 201-956-0299 (8월 15일 마감)
- 접수비:양일 \$50 (식사포함)

제1독서: 열왕기 상권3,5-6,7.7-12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8-30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13,44-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던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상식

왜 우리는 선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믿음과 성사를 필요로 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힘에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고 참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성사"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징조 속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